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3

2017.1.15

2017년 주님의교회 포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_ 로마서 1:17

오늘의 주요기사

- 2 교회소식
- 3 신년특집 - 다시 거룩한 교회로
- 4 선교이야기
- 5 신임교역자 소개
- 6 알립니다

교회 일정

1/15(주일)	정기당회
1/15,22(주일)	신임서리집사교육
1/18(수)	4/4분기 제직회
1/22(주일)	재직수련회
1/25(수)	공동의회
1/27(금) - 30(월)	설날
2/5(주일)	성찬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출함출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개혁과 소망!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개신교회는 개혁의 정신위에 세워졌다

새해를 맞으면서 제게 다가온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와 개혁이란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다가온 이유는, 참된 소망은 개혁과 함께 가야하고, 개혁이 동반된 소망이 바른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가 종교 개혁 500주년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나 칼빈, 쾰링거같은 개혁가들이 생명을 걸고 개혁한 것은, 개혁을 통한 교회를 향한 소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소망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우리 나라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로 나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극심한 혼란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문제이자 온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버둥은 소망의 발버둥입니다. 소망만은 잃지 않으려는 발버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개혁을 통한 소망을 가지려는 몸부림입니다. 개혁없이 소망만 추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소망이 이용당할 것이며, 비현실적인 환상의 구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을 통해 소망을 가지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이 정신 위에 세워졌고 이 개혁이 개신교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회복해야 함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며 귀신이 물려가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과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공동체인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

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과연 모든 세상적인 차별을 물리치며 온 성도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으로 세상이 찾아오는 공동체인지? 이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담임 목사의 임기가 약속한 대로 10년으로 마쳐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은 당연히 개혁과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꿇고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박원호 담임 목사

총회소식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

주님의교회 소속 교단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 따르면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정동제일교회 본당에서 출범감사에배를 드리고 출범하였다. 400여 명이 참석해 드려진 이날 예배에서 '하나됨의 힘' 제하의 설교를 한 총회장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슬람과 동성애, 목회자납세와 이단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했고, 하나 될 때 강해지고 비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예배 후 이어진 출범식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나뉘어 각각 속한 단체의 목적만을 주장해온 현실을 회개

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단 중심의 연합단체로의 복원을 추진해 왔음을 밝혔고, 앞으로 한교연과 한기총의 실질적 연합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 결론을 조속히 도출해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된 연합단체를 출범한다고 조속한 연합을 강조했다. 이 선언문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과 대신, 기침, 감리회, 고신, 합신, 루터회 등 15개 교단 교단장이 서명했다. 앞으로 한교연과 한기총이 마찰 없이 완전하게 한국교회총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5가지 계획도 발표하였다.

함즐함울

사역소식

나에게 준 성탄의 의미는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2교구에서는 마천 2동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작은 시간들.. 동네 청소를 하고 독거노인들께 라면과 추운 겨울에 쓰실 털모자들과 양말 등을 나누어 드린 나눔의 시간들, 비록 작은 섬김이었지만 우리들 사랑을 나누게 해주소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소서.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받아드리며 감사하고 깨어지고 나눠야하는지를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들, 이 섬김의 시간들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석 집사

사역소식

호스피스팀 중창단 창립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에서는 2017년에 중창단을 조직하여 2017년 1월부터 삼성서울 병원에서 매월 첫주 예배에 찬양으로 봉사를 합니다. 호스피스팀은 60여명의 봉사자들이 서울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동부시립병원, 한일 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기쁨병원과 춘천 호스피스 병동등 8개병원

에서 말기암 환우들을 위한 봉사와 안내봉사 등을 하며 실로암 요양원 등 장애인 시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주님의교회내에서 가정호스피스봉사도 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 봉사는 11주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함즐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7

細麻布(세마포, linen)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베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베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출애굽기 39장 27-28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제사장 의복재료로 사용된 亞麻布(아마포)이다. 아마는 중, 근동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이며 애굽의 세마포는 특히 품질 좋기로 유명하다. 제사장의 의복재료나 시신을 싸는

壽衣(수의)재료로 사용되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세미하게 직조된 세마포는 성도의 영적순결을 상징한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은 순결한 옷이 세마포이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므로 이 옷은 세상 부귀영화의 찬란한 의복과 패물로 치장한 淫女(음녀)의 모습과 대조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細(가늘 세) : 실이나 옷감의 총칭인 糸(실 맥, 실 사)에 농토나 사냥 또는 화려한 무늬를 상징하는 田(밭 전)을 결합시켜【실을 밭의 모시, 솜,

삼베, 누에고치에서 얻으니 가늘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麻(삼 마, 저릴 마) : 집이나 언덕을 상징하는 宀(집 엄, 엄호 엄)과 같은 종류의 식물이 가지런히 자라는 모양 林(수풀 림)을 결합시켜【집에서 어른의 감독 하에 기르는 숲처럼 뻗뻗한 식물이 삼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이는 대마초의 폐해를 알고 만든 경고성 문자이다.

★布(베 포, 펄 포) : 손. 많다. 완전함의 뜻을 지닌 十(열 십)의 변형체에 한 폭의 천을 허리에 꿰찬 모양의 巾(수건 건, 건 건)을 합쳐【손으로 짠 한 폭의 천이 베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함즐함울

섬기는 손 39



추운 겨울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포장하는 어머니들의 손길. 군선교팀에서는 60개의 성탄 선물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대상은 주님의교회 출신 장병들과 세례를 준 부대 장병 중에서 송파구민 장병입니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즐함울

신년특집 : <한국기독교공보> 신년 좌담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 -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2017년의 주님의교회 표어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입니다. 예년의 표어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의 표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101회기 총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고 정한 데 따랐습니다. 한편, 교단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는 2017년의 키워드를 “개혁”으로 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보>(2017. 1. 7)에는 신년기획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택한 까닭과 올해의 과제에 대한 신년 좌담이 수록되었는데, 이 좌담에는 총회장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101회 총회주제연구위원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위원 박병욱 목사(대구중앙교회)가 참석했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이 좌담과 몇몇 관계 기사를 요약 정리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로”의 취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줄함울**

101회기 총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로 정한 까닭

이성희 총회장 : 2017년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에 눈길을 돌려야 하며,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관인 교회가 사회의 기준이 못하고 지탄을 받는 까닭은 거룩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500주년 준비위원회와 101회기 총회 주제연구위원회가 함께 논의한 끝에 거룩성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보통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한 세기 전에는 안 후스가 있었고, 루터의 뒤에는 장 칼뱅이 있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원리적 측면에 집중한 반면, 칼뱅의 종교개혁은 사회개혁, 사회운동적 측면이 강했습니다. 칼뱅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장로교회가 사회개혁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계기로 일어나는 한국 개신교회의 개혁 노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2019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만 해도 개신교는 독립운동을 이끌며 민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20만 신자들이 3·1운동을 주도했지요. 민족대표 33인 중 개신교인이 많았고 지방에선 교회들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

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현장의 문제 등이 발생했듯 한국 교회도 성장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

다. 역설적이지만 교회는 ‘성장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신교가 변화하고 개혁된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배, 종교개혁기념음악회, 독일종교개혁행사 참석,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행사 참여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개혁의 힘을 키우고 내면화하는

민족과 사회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회가 결정한 이런 주제와 사업에 각 교회가 공감하여 따르고 각자 솔선하여 개혁에 앞장서면서, 총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원호 목사 : 거룩의 본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영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사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교회 전체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교회 성장도 되로 물러나야 하고, 축복신앙, 물량신앙도 물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는 교회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박병욱 목사 : 개혁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고 혁명은 타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자기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혼란한 정치적 현실을 일컬어 한국 정치가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 래디컬하게 나가야 하는데 40년이 아니라 400년 전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물량주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목회와 사고구조 속에 물량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예언도 사라져야 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스스로 래디컬하게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개혁을 이루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습으로 민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과제

박원호 목사 : 101회기 총회주제연구위원으로, 종교개혁의 정신,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인 담론들, 교회교육의 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현실 개혁입니다. 개혁은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현장이 연결되도록 현실 문제를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교육 역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총회 커리큘럼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교회학교’를 지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학교의 틀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같이 지식과 공부 중심으로 교육되다 보니 신앙과 영성이 약해집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박병욱 목사 :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는 첫째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고 둘째 현실개혁의 힘을 얻는 일입니다. 기념사업도

사업으로, 목회와 설교자료의 발간, 종교개혁기념강좌, 종교개혁5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기념 선언문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설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단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자세

이성희 총회장 : 2017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골든타임입니다.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라는 연대기적 기회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3.1운동 때 국민 1600만 명 중 기독교인 20만 명이 독립운동의 주체였습니다. 전체인구의 2.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장로교는 칼뱅의 종교개혁인 사회적 실천에 앞서야 합니다.

개혁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한두 해 개혁하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가 3.1운동과 같이 민족의 정신과 열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개혁에서 출발하여

성도 간증

내 생애 최고의 행복

2016년 12월 6일 주님의 교회 중예배실에서 늘푸른대학 종강예배와 수료식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뒤돌아보면 늘푸른대학은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일흔이 넘도록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 2015년 여름을 미국 큰 딸에 집에서 지낼 때이다. 주일날 딸을 따라 나선 교회에서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예배 후 실버모임에 갔는데 교우들 나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엄마, 귀국하면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셔요.”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귀국 후 주님의 교회 늘푸른대학에 등록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가슴 가득 차올라 기뻐다. 반세기만에 다시 하는 학교생

활(늘푸른대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스터디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다. 주일이 되면 주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매사에 감사하고, 늘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2016년 1월 31일 나는 주님의 교회에 등록했다. 황야를 헤매던 늙고 지친 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했다. 세례를 받은 날은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다시 태어난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이제는 주일마다 아들과 함께 손녀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며 앞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날을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정태원 늘푸른대학 찬양반

로렘나무

장터에서 먹던 팔죽 맛

간식거리가 그리 풍부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를 따라 5일장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독특한 냄새를 풍기며 작업을 하는 고무신 때우는 아저씨의 모습,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엄마를 조르지 못했던 옷가게 앞, 예쁜 색깔의 과자 더미가 쌓여 있는 곳, 비린내가 나는 생선가게, 옆으로 신기하게 기어가는 게들의 모습, 몇 푼의 돈을 바꾸려고 끌고 나온 암탉들... 그러나 저는 풀 빵집과 단 팔죽 집 앞에서 엄마가 보란 듯 시선을 오래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엄마는 가끔 단 팔죽을 한 그릇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돈이 어떻게 생기며, 얼마를 지불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엄마에게 조르면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단 팔죽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먹는 것 때문에 갈림 길에 서게 된 에서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성경을 찬찬히 읽는 습성이 있습니다. 배가고

파 피곤하여 먹을 것을 달라한 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야곱의 의도가 일을 꼬이게 한 출발점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명절 되시고, 음식에 담긴 여러분의 추억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장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김이었던라

(창 25:31-34)

김낙균 집사

선교 이야기 1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극도로 반대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교만한 독선 주의자로 여긴다. 그런 오해와 반대에 굴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해나가려면 성경에서 분명한 동기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대한 증거는 성경 전체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는 이렇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12:1-3).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와는 땅과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타락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들이 창세기 4장-11장까지 나오다가 12

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4-11장은 12장에 뜬금없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못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팔십대의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는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구약시대에 성취되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호1:10-2:1)) 신약시대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갈3:14)).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곧 의롭게 되는 복(갈3:8)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갈3:14)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종말적

으로 요한계시록 7:9에서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환상 중에 본다. 그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전 세계적 무리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마침내 종말에 자신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선교의 동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John R. Stott)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팀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신임교역자 소개

새해,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7분이 주님의교회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맞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일 교육전도사 / **아름드리 소년2부**

가슴을 뜻하는 HEART는 HE/ART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며(성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사역(제자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왕상현 전도사 / **중등부, 청소년 예친사**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중학생 시기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을 거칠게 흔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느끼는 갈등과 고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발을 만들어 줍니다. 중등부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교육전도사 / **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내야 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채인 교육전도사 / **사랑나무**

무엇보다도 저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사랑나무 전도사가 되어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나 주님께서 가장 귀히 돌보시는 지체, 사랑나무의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조영찬 교육전도사 / **고등부**

제게 있어 청소년은 목적입니다. 고등학생 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찬양인도자로 섬기며 삶의 근본적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동안 기도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전도사님, 목사님,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홍승표 교육전도사 / **청년부**

저는 어린 시절 긴 시간 동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려 하셨던 서원기도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으로 행하는 겸손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석 교육전도사 / **포도나무 유년부**

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흥얼거리며 은혜를 받곤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24>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39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8)

미북장로회 선교부 교육철수 결의



1938년 6월 28일. 동아일보

1936년 5월 9일, 한국 선교부 실행 위원회는 한국에서 '교육 철수'를 결의했다. 이어 6월 30일, 한국선교회 연례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1일,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회에서 한국선교부에서 온 교육철수 권고안을 승인했다.

미북장로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교육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선교계 학교는 학교를 한국인에게 인계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월 21일, 신사참배에 강경한 입장에 있던 평양의 숭실

전문, 숭실, 숭의는 폐교원을 제출했다. 평양의 세 학교를 인계하려고 노력했던 후원회, 기성회, 교우회의 요청을 뿌리치고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는 평양 세 학교를 폐교하며 학교 재산은 매도나 양도뿐만 아니라, 계속 경영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1938년 3월 31일, 평양의 숭실학교, 숭실전문, 숭실여학교는 자진 폐교를 했다.

아울러 한국선교부 실행위원장 로즈는 교육사업 철수 문제는 한국선교부 연례회의에서 결의하고 미북장로회선교부에 청원한 것이 이번

에 미북장로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니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고 남은 것은 수속문 제뿐이라고 하였다. 미 북장로회 선교부는 한국선교부에게 "1. 교육 인퇴는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할 것 2. 금년 7월부터라도 학교보조금을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 3. 학교를 폐교한다면 철수하는 비용과 퇴직금은 이곳 재산을 처분하여 적당히 처리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서울지부 정신여학교는 이제 폐교 위기에 놓였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2016년 12월 25일 유아세례식

권수아, 김소연, 김시아, 김아윤, 김재희, 김지예, 김지율, 문윤성, 박유주, 박찬웅, 박찬유, 백건우, 변서아, 안지민, 이라엘, 이라임, 이윤서, 이정현, 이주은, 이주하, 정유하, 주이현, 채윤, 채리원, 채시원, 최봄, 최환준, 한상윤, 홍서준 (총29명)



2016년 자녀가 초대하는 성탄가족예배

2016년 12월 25일 오후, 대예배실에서 성탄절을 맞아 '첫번째 성탄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많은 교육부서들이 참여하였고 자녀들의 노래와 춤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 및 정재상 목사 퇴임

2016년 12월 25일 2부 예배 때에 안수집사 11명, 권사 15명의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6년동안 청년부를 담당했던 정재상 목사의 퇴임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단상 형식의 글을 보내주십시오. 신문에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메일 계정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십시오.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배달의 함즐’ 오늘 신청하세요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함즐함울을 보내드립니다. 받을 분의 주소와 부수를 hamletter@daum.net 으로 알려주세요

2017년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사무실과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알립니다

1. 2017년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레19:2, 롬1:17)

2. 2017년 교구담당목사

1교구: 임창진 목사 2교구: 김정형 목사 3교구: 김대환 목사
4교구: 이은석 목사 5교구: 최방은 목사 6교구: 심홍섭 목사
7교구: 김용웅 목사 8교구: 홍성욱 목사 9교구: 정창화 목사
젊은이교구: 허준 목사 청년부 : 문희삼 목사

3. 2017 신입 서리집사 대상자 및 교육

대상: 만30세이상, 세례(입교) 및 등록 후 각 1년 이상
교육: 1/15, 22주일(2회) 오후2:00~3:00 소예배실(1층)
* 교육에 꼭 참석하여야 서리집사에 임명됩니다.
문의: 각 교구목사

4.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일시: 2017.1.5.(목)부터

발급방법

- ①홈페이지에서 본인직접 발급(등록교인에 한함)
- ②홈페이지에서 사무실로 직접 신청
- ③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

* 현재 사용중인 핸드폰 번호가 교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 인증이 되지 않으니 사무실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2017년 새벽기도 헌신자 모집

*1년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헌신자를 모집합니다.(신청:교회로비)
문의: 손영익 안수집사(010.2287.9258)

6. 2017 부활절 예배드라마 연기자 모집

대상: 전교인(연령, 연기경력제한없음)
문의: 문규호목사(010.4909.1831)

7. 제직수련회

일시: 1/22(주일) 오후 3:45 대예배실
대상: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지휘자

8. 휴무안내

- ①전화상담실 1/2(월) - 2/3(금) / 문의 김미자 권사(010.3741.9685)
- ②도서부 2016년 12/19(월) - 2017년 2/13(월) / 주일은 정상운영
문의: 이제원 안수집사(010.3663.5850)
- ③설만한 물가 1/2(월) - 1/31(화)